



東國大同窓會報

발행인 · 편집인 이연택 100-718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97-28 백상빌딩 302호 (재)동국장학회 T.02)733-3991~3 인쇄 (주)한우리SJM

2010년 (단기 4343년) 10월 4일 (월)

<http://dongguk.or.kr>

제220호

흠커밍데이... 만나고 나누고 '화합' 한마당

본회, 장학금 - 교수 학술지원비 1억5천만원 전달



▲ 흠커밍데이 행사에서 열싸안고 기쁨을 나누고 있는 본회 이연택 회장과 모교 오영교 총장.

본회와 모교가 공동 주최한 '2010 흠커밍데이' 행사가 1천여명의 동국가족이 운집한 가운데 지난 10월2일 오후 4시30분부터 서울캠퍼스 중강당과 대형강의실, 상록원 등지에서 축제분위기 속에 펼쳐졌다.

이날 행사에서 이연택 총동창회장은

오영교 모교 총장에게 재학생 장학금 및 교수 학술연구지원비 명목으로 1억5천만원을 전달했다.

지난 해에 이어 금년으로 두번째가 되는 이날 흠커밍데이 행사의 제1부는 '대학(원)별 만남의 장'으로 각 단과대학(원)별로 비전 및 발전전략 브리핑,

학과 교수와의 간담회, 장학생과의 만남, 동문 상봉 이벤트 등이 진행됐다. 2부 행사인 '화합 한마당'은 우선 관계로 만해광장에서 중강당으로 장소를 옮겨 재단 이사장 정련스님의 환영사, 이연택 본회 회장의 축사, 오영교 모교 총장의 감사인사 등이 있는 뒤 재학생들

의 '뮤지컬 갈라쇼'를 시작으로 정선아 동문의 축하, 가수 인순이의 축하공연 등으로 축제분위기를 한껏 돋웠다.

이날 참석자들은 중강당에서 공식 행사를 마친뒤 상록원 식당에 마련된 만찬장에서 음식을 함께 들며 즐거운 담소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2학기 장학금 전달... 올 목표 200명 초과 달성 ⇨ 2면

'2010 동국인의 밤' 개최 안내

동국은 우리 동국인 모두의 마음의 고향입니다.

'2010 동국인의 밤'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모천(母川)을 다시찾은 언어들의 기쁜 마음으로 만남과 우정과 격려를 나누는 밤,

동국사랑의 용광로를 다시 한번 뜨겁게 달구어 봅시다.

선후배 · 동기들끼리, 학과 · 지역 · 직능별로 모두모두 참석하셔서

'자랑스러운 동창회 · 형제같은 동국인 · 발전하는 동국'의 위상을 드높여 봅시다.

'모이자 동국인!! 나가자 미래로!!'

▶ 일시 : 2010년 12월 15일 (수) 저녁 6시 30분

▶ 장소 : 명동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 볼룸

▶ 문의 :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사무처

(T) 02-733-3991. 3993. 02-736-4987. 4988

※ 자랑스러운 동국인상, 모범지부(회)상 대상후보를 추천받습니다.



각 학과 · 지역 동창회 등 추천거쳐 장학생 선발

이연택회장 “릴레이 장학금으로 승화되도록 정진을”

본회는 서울과 경주캠퍼스 후배 재학생 113명에게 2010학년도 2학기 장학금을 지급했다.

서울캠퍼스 장학금 전달식은 지난 9월15일 오전 10시30분 이연택 총동창회장 겸 사단법인 동국장학회 이사장을 비롯한 총동창회 상임부회장과 각 학과별 동문회 회장단, 모교 최순열 학사부 총장과 학교 관계자 및 장학금 수혜 학생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관 4층 로터스홀에서 열렸다.

장학금 수여는 이연택회장을 비롯, 동국장학회의 구자선 나경미 이사과 김진역 이홍섭 감사, 본회 법타스님 정환민 순학중 이효정 상임부회장과 이재곤 감사, 황영남 국어교육과동문회장, 최종협 인천지부장, 하한기 건축과동문회 사무국장 등이 참여했다.

또 경주캠퍼스는 9월16일 오후 5시 이연택 회장 등 총동창회 임원진과 손동진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 장학생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백상관 컨벤션홀에서 장학금 전달행사를 가졌다.

경주캠퍼스는 최규철 모교재단 이사, 사회과학대학원의 이두철 명예회장과 김석만 회장, 정각원장 화랑스님, 문병호 본회 상임부회장, 박병훈 경주직할동문회장, 박진호 부산지부 수석부회장, 손창수 대구지부장, 이태경 모교 재직동문회장, 손승열 불교문화대학원 수석부회장, 공석돈 회계과 동문회장이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본회가 각 학과와 대학원 동창회, 광역시·도지부, 장학금 기부자, 모교 정각원 및 재직동문회 등의 추천을 받아 선발한 2학기 장학금 수혜자는 서울캠퍼스 68명, 경주캠퍼스 45명으로 총 113명에게 1억1천3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번 2학기 장학금 지급을 마침으로써 본회는 지난 1학기 108명을 합해 금

년에 모두 221명에게 2억2천1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지난 7월에 지급한 고시반 학습지원비 125명을 합하면 연인원 346명의 재학생에게 2억5천850만원을 지원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교수연구비로 지난 5월 1억원을 전달함으로써 금년도의 공식적인 모교 지원비는 3억5천850만원이 되고 있다.

금년도 장학금 지급은 당초 전년도 40명에서 200명으로 늘릴 계획이었으나 최종 221명에게 전달함으로써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

이연택 회장은 장학금을 전달하면서 재학생들에게 “동국의 위상이 재학생의 위상이고 동문의 위상이니 만큼 재단, 학교, 동창회가 합심 노력해서 돈 이상으

1학기 108 · 2학기 113명 등 총 221명 혜택 서울 정각원 - 건축공학과 자체 장학금 전달

로 중요한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면서 “동국장학회의 장학생이 되었다는 긍지를 갖고 21세기 국제화시대가 요구하는 큰 인물로 거듭나 줄 것을 기대한다”며 격려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모교 정각원(10명) 및 건축공학과동창회(1명)가 자체 장학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 서울캠퍼스 장학생 명단(68명)

- ◆학과동창회 추천(45명)=△전시웅(불교2) △안태식(불교2) △임미라(철학4) △송우림(사학2) △안 욱(윤리문화3) △명지숙(국어국문2) △김지현(영어영문4) △김형준(영어영문4) △조보배(화학4) △이현정(물리2) △한영성(통계4) △김한수(수학3) △강은경(사회과

- 학4) △김덕우(사회과학4) △김은정(경영2) △김진성(사회3) △문경원(경제3) △김윤항((식품산업관리2) △김형환(사회과학4) △민세근(법학3) △나이태(경영3) △황상현(회계3) △어택수(경영4) △정한식(경영정보4) △고 건(생명과학4) △김우람(식품4) △양승덕(바이오환경과학2) △김준영(바이오환경과학4) △조영진(전자전기3) △이정량(건축공학3) △전재호(사회환경시스템공학3) △김희정(화공생3) △함경식(건공3) △김부영(컴퓨터공학3) △김소현(전자전기공학3) △전혜정(산업시스템공학4) △이승현(체교4) △정충기(역사교육3) △원희정(지리교육3) △김진아(가교2) △조영은(국교2) △윤제현(교육3) △김

- 태호(수교3) △박혜진(연극2) △최지수(미술3) △조한솔(영화영상4)
- ◆정각원 추천(10명)=△혜원(한유정. 불교1) △윤성(김도연. 불교1) △법광(이지구. 불교3) △이남은(건축3) △정인창(인철3) △한혜미(불교미술2) △왕가우(국제통상2) △손희삼(영어통번역3) △예희영(식품생명공학1) △이경섭(경영3)

- ◆대학원동창회 추천(4명)=△송화영(복지행정 3학기) △강혜운(정보보호 3학기) △김의진(교과교육 4학기) △김주정(인쇄출판 2학기)
- ◆광역시·도지부 추천(3명)=△김범식(일어일문3) △류동오(경영1) △김지환(영어영문4)
- ◆모교 재직동문회 추천(1명)=△이혜승(인철3)

- ◆장학금 기부자 추천(4명)=△윤영배(경영3) △신지웅(경영2) △김혜림(경영4) △박재한(법학4)

- ◆건축공학과동창회 자체 장학생(1명)=△서성대(건공4)

■ 경주캠퍼스 장학생 명단(45명)

- ◆학과동창회 추천(37명)=△정성훈(불교4) △박정희(선학2) △김현진(불교아동3) △장주영(한국음악3) △이채린(국어국문2) △윤정부(한문2) △안창식(국사3) △최순정(고고미술3) △정다훈(철학3) △이형남(영어영문2) △박경동(일어일문2) △정춘자(중어중문3) △이승미(미술1) △박정완(사회체육3) △김장운(생명과학4) △윤창열(나노소재화학3) △임우혁(안전환경시스템2) △이주환(정보통신4) △최봉주(컴퓨터 멀티미디어3) △이서희(조경3) △차화연(행정4) △김정배(정의2) △김준연(사회복지3) △유수진(경제3) △김희연(국제통상4) △윤민우(경영4) △정아영(회계4) △유학규(정보경영3) △이재영(관광경영3) △김동현(호텔컨벤션경영3) △유경영(외식경영3) △김하느리(유아교육3) △황 선(가교2) △이주은(수교2) △이영수(한외4) △이다은(의학1) △성소민(간호3)

- ◆대학원동창회 추천(2명)=△임상균(정의2) △김인기(불교2)

- ◆경주직할 및 광역시·도지부 추천(3명)=△김효남(영어영문3) △이창진(미술2) △김승겸(한의2)

- ◆모교 재직동문회 추천(1명)=△박준(생과4)

- ◆장학금기부자 추천(2명)=△서동욱(정책개발 4학기) △천명수(정책개발 4학기)

송석환 동문 2천만원 추가 기부

2006년부터 총 8천5백만원 달해



본회 수석부 회장 송석환 (64/68 농경) 동문이 지난 9월 29일 본회에 장학기금 2천만원을 기탁했다.

진기업 회장으로 있는 송 동문은 지난 2006년 11월에 발전기금 3천만원을 기부한 바 있으며, 2009년과 금년 5월에는 본회 장학기금으로 3천만원과 5백만원을 각각 기탁했다. 모교와 동창회에 남다른 애정을 보여주고 있는 송 동문은 이번에 다시 2천만원을 기부함으로써 총 기부액은 8천5백만원으로 늘어났다.

김경재 동문 장학기금 3천만원

해외동문 참여 첫 케이스로 귀감



북미주지역 동문회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김경재 (65/69 농학) 동문이 지난 9월 30일 본회에 장학기금 3천만원을 기탁했다.

데 청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 동문은 지난 2004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않고 올해까지 7년째 계속 모교에서 선발한 후배 장학생들을 미국으로 초청, 모든 항공료와 체제비 전액을 부담하면서 미국 동·서부 지역의 명문 대학과 명소들을 돌아보도록 하는 '김경재 회장 초청 북미주 해외탐방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동문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기도 하다.

이번 장학기금 기탁은 총동창회에 해외동문으로서의 첫 기금 전달 케이스로 향후 해외 동문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김 동문은 현재 의류사업과 골프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

정연수 동문 1천만원 보내와

말포산업 대표이사로 있는 정연수 (70/74과교)동문이 지난 8월20일 본회 장학기금으로 1천만원을 기부했다. 정 동문은 지난 1988년 기업경영 승계 후, 구두약 전문 생산업체에서 사업영역을 넓혀 자동차용품을 비롯한 가정용 왁스

등으로 진출, 국내 유망중소기업으로 차실한 성장을 해왔다. 정 동문의 평소 철학은 자신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갖는 데서 보시의 행복을 찾는 것이라고 한다.

〈관련기사 11면〉

민승규 동문 농촌진흥청장 취임

'농업아이디어뱅크'로 큰 역할



민승규 (81/88 농경)동문이 지난 8월 16일 농촌진흥청장에 취임했다. 민 동문은 도쿄 대학원에서 농업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삼성 경제연구소 정책연구센터 수석연구원을 지냈고 대통령 경제수석실 농수산비서관과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 등을 역임했다.

화문을 펼쳐 왔고, 2001년에는 한국 벤처농업대학을 설립하면서 농업인들에게 경영마인드를 심어주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한편 민 동문은 지난 9월 16일 아침 서울 소공동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종로 포럼 조찬특강을 통해 "농업은 그 어떤 산업보다도 높은 부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이 시대의 블루오션이다."라고 말하고 "농부들이 단순히 생산에만 그치지보다 생산과 유통, 판매까지 기획하고 책임져야 하는 시대"라며 "농부도 경영자로서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제품에 디자인을 가미할 수 있는 기업경영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업의 아이디어뱅크'라 불리는 민 동문은 '돈 버는 농업' '농업 CEO 10만명 양병설' 등 농업의 산업

민병덕 국민은행장 축하모임



민병덕(74/78경영)동문의 국민은행장 취임 축하 모임이 본회 이연택 회장을 비롯한 동문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9월14일 저녁 롯데호텔 37층 도림에서 있었다.

이날 축하연은 임덕규 본회 고문의 주선으로 이루어졌다.

〈사진 오른쪽부터〉

김재기 전 국민은행장, 형종오 삼공기어 회장, 김형성 한일광고 회장, 조희영 모교 명예교수, 이연택 회장, 임덕규 디플러머시 회장, 민병덕 국민은행장, 김희옥 헌법재판관, 김태원 국회의원, 김기유 동문, 이종길 KCC 부사장



▲ 본회 이연택 회장, 재단이사장 정련스님, 모교 오영교 총장 등이 학위수여식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가을학기 학위수여식

졸업생 1천6백54명 동창회 품 안으로

2010학년도 서울·경주 캠퍼스의 가을학기 학위수여식에서 본회는 1천 6백54명의 신입회원을 맞이했다.

8월20일 오전 중강당에서 열린 서울 학위수여식에서는 일반대학원 박사 60명, 일반대학원 석사 169명, 특수대학원 박사 2명, 특수대학원 석사 330명, 학사 766명으로 총 1,327명이 학위를 받았다.

이어 23일 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경주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255명, 석사 47명, 지도자 및 AMP과정 25명 등 총 327명에게 학위증이 수여됐다.

본회 이연택 회장은 “국적은 바꿀 수 있을지 몰라도 학적은 결코 바꿀 수 없는 것”임을 강조하고 “동문 상호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강력한 동문 네트워크를 추진, 모교를 위한 일에 적극 앞장서는 동국인이 되어달라”고 당부하였다.

본회 고문단에 중추절 선물

단위동문회 추천 동문 특별 위로도

본회는 민족 대명절인 중추절을 맞이하여 본회 고문단 25명과 동창회에 기여한 바가 큰 동문 8명을 선정, 그 공에 감사하고 격려하는 특별 선물을 보냈다. 이연택 본회 회장이 전하는 감사의 편지와 함께 우편으로 발송된 이번 선물은 고문단에게는 꽃감세트가 보내졌다. 또 동창회 발전에 기여하고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문들에게는 대상자를 직접 추천한 동문회장이나 사무국장을 통해 금일봉과 감사편지를 전달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유근창(48/50전문부)동문을 위시한 원로 고문들은 “동창회 참여 이래 처음있는 일”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해왔다.

영전·승진 동문 축하 만찬

각계 각층 동문 한자리 모여



금년에 사회 각계각층에서 기관장으로 취임했거나 영전, 또는 승진한 동문들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모임이 본회 주관으로 지난 9월30일 저녁 인사동 한 정식집에서 있었다. 이날 모임은 관계에서 농촌진흥청장 민승규(88/88농경), 대전지방국세청장 박동열(73/77행정), 서울시 대변인 이종현(85/89국문)동문이, 금융계에서는 국민은행장 민병덕(74/79경영),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

원 최규연(74/78행정)동문, 경찰계통에서는 서울지방경찰청장 이성규(74/78경행), 경찰대학장 손창완(74/77경행), 경찰청 경비국장 임승택(74/78경행), 경찰청 정보국장 김인택(75/79경행), 경찰청 외사국장 이성환(75/79경행)동문, 또 기업인으로는 삼성물산 건설부문 사장 정연주(69/73경영), 동부화재 사장 김정남(72/79행정), 흥국생명 사장 변종윤(80/84무역)동문 등이 초청되었다.

중국 동문회 정기총회 열려

“모교발전·동문 결속 교두보” 다짐

중국 동문회의 정기총회 겸 동문의 밤이 지난 9월 11일과 12일 양일간 중국 청도시 노산구에 있는 기상대호텔에서 북경과 청도, 천진, 상해 등 4개 지부지역동문회의 임원 및 동문들과 그 가족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11일 최영철 중국 총동문회장의 환영사, 이연택 총동창회장장과 청도 관음사 회주 우학스님의 축사에 이어 정기총회 및 만찬, 12일 청도시내 및 해상관광과 동문 골프대회 등의 일정으로 시종 활기차고 화기애애한 분위

기 속에 진행되었다.

본회 이연택 회장은 축사에서 “고국을 떠나 타지에서 활동하며 같은 모교를 나온 동문들로서 유대와 결속은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모두가 뜻한 바를 이뤄 일신상의 성공은 물론, 나라와 모교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해달라”며 격려했다.

한편 이번 중국동문회 정기총회에는 이연택 회장을 비롯 김오현 체육1담당 부회장과 신관호 사무국장이 참석, 격려하였다.

<관련기사 10면>

광주동문회서 장학기금 1천만원

“모교발전에 동창회 역할 크다” 공감



▲ 본회 회장단과 광주지부 임원들이 축하케익을 자르고 있다.

광주광역시동문회(회장=류수택·60/67경영) 월례모임이 이연택 총동창회장 광주방문 환영 및 장학기금 전달식을 겸해 지난 9월7일 저녁 광주시 백운동에 있는 프라도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광주동문회는 동창회 장학기금으로 이연택회장에게 1천만원을 기탁하면서 “동창회가 모교발전을 위해 큰 축이 되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연택 회장은 인사에서 “우리 동창회가 여느 대학 못지않게 자기 발전을 위해 일하는 동창회가 되도록 더욱 분발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이연택 회장은 광주동문회 발전에 공이 큰 김기중(59/63상학, 대성학원 이사장) 전 회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하는 한편, 광주지부가 자체적으로 장학생을 선발하도록 동창회장학금 증서(1명)를 류수택 회장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모교 재단이사로서 있는 수인스님(98/00선학, 연화사 주지)은 정각원 장학금으로 1백만원을 이연택 회장에게 별도로 전달, 박수를 받았다.

이날 모임에는 최성호(48/52국문, 전 광주교육대 총장), 설정환(55/59경계, 전 대성여고 교장), 이상진(56/60법학, 광주 불교방송 사장), 양성철(73/80경

행, 광주지방경찰청장), 김태봉(73/77법학, 변호사)동문을 비롯해 광주 동문 40여명이 참석했다. 본회에서는 이연택 회장과 송석환 수석부회장, 법타 스님(기획담당부회장), 이재형 총무담당 부회장, 사무처 전영화 사무총장과 신관호 사무국장이 동참, 격려했다.

북미주 초대회장 이태근동문 환영회



북미주총동창회 초대 회장 이태근(56/58정치)동문의 모국 방문 축하모임이 지난 9월1일 저녁 서울 잠실에 있는 대호갈비(대표 유대진·59/63상학)에서 류주형 전 총동창회장, 김인규·신승길·이용성 지도위원, 이재형·김익종·최윤섭 부회장 등 25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태근 동문은 “평생을 함께한 동문들과 매년 이렇게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쁘다. 모두 건강하게 생활하여 이런 좋은 자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자”면서 감사의 뜻을 표했다.

여자 총동창회 신임 집행부 출범

오랜 침묵 깨고 적극 활동 다짐



김영순 회장

이번 출범식에서는 김영순(65/69화학, 모교 화학과 교수) 신임 회장의 인사에 이어 집행부 발표와 함께 사업계획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여자동창회는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김영희(60/63법학) 전임회장으로부터 업무 인계인수를 받았으며, 그동안 김 회장을 비롯한 뜻있는 동문들이 유망무실해진 여자동창회의 재건을 위해 발벗고 나서으로써 새 동지를 틀게 되었다.

신임 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여학생 수와 남학생 수가 5:5로 늘어나면서 여성 동문들의 파워를 새롭게 인식할 때가 되었다”면서 “우리 선배들이 주춧돌을 놓아 여자 동문들도 적극적으로 동창회와 모교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여자 동창회는 사업계획으로 △회원 발굴 확대 △자체기금 조성 △후배 취업 알선 △전용 홈페이지, 또는 카페 개설 △모교 방문행사 등을 제시했으며 오는 11월26일 모교(상록원)에서 정기총회를 계획하고 있다.

◆신임 집행부 명단

- △회 장= 김영순(동국대 교수)
- △수석부회장= 박미진(인천대 교수)
- △사무1국장 = 전미경(동국대교수)
- 사무2국장= 조운오(동국대 교수)
- △감사 = 김옥경(경원대 교수)

모교 운동선수 격려의 밤



▲ 본회는 각 운동부의 감독 및 코치·선수 등 1백여명을 초청, 선전을 치렀다.

축구부 추계연맹전 우승 축하 겸해

야구 축구 농구 등 모교 운동부의 사기 진작과 축구부(감독=김종필)의 제41회 전국대학축구 추계연맹전 우승을 축하하는 ‘모교 운동선수 격려의 밤’ 행사가 지난 9월28일 오후 6시 호텔 엠배

서더 부페식당에서 열렸다.

이자리에서 이연택 총동창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모교 운동부는 교세로서 재학생이나 동문 등 구성원들에게 좋은 성적을 선물하도록 더욱 용맹정진해줄 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경찰청 인사에서 동문 대거 약진

서울경찰청장 이성규 · 경찰대학장 손창완 동문 등



이성규



손창완

지난 9월8일 발표된 경찰청 고위간부 인사에서 이성규(74/81경행)동문이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손창완(74/78경행)동문이 국립경찰대학장으로 발령되는 등 동문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서울지방경찰청장 이 동문은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지냈고 이번 치안정감 승진 직전까지 경찰청 정보국장을 지낸 바 있다.

치안정감 승진과 함께 경찰대학장으로 부임한 손 동문은 전북지방경찰청장등을 역임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경찰청 경비국장에 임승택(74/78경행), 생활안전국장에 김인택(75/79경행), 외사국장에 이상한(75/79경행) 동문이 각각 보임되었다.

또 경기경감청장에 이강덕(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부산지방경찰청장에 서천호(99/02행정대학원) 동문이 발령되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차장 신두호(78 행정대학원)동문을 위시해서 생활안전부장에 이금형(99/02 행정대학원/일반대학원 경찰행정학과 박사), 교통지도부장에 구은수(78/85 경행), 경비부장에 장전배(98/00 일반대학원

경찰행정학과 박사), 보안부장에 김종양(00/04 일반대학 경찰행정학과 박사)동문 등이 각기 부임했다.

-총경급 인사-

▲백준태(04/07 행원)=경찰청 정보통신1담당관

▲김석돈(02/04 행원)=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김상운(78/85 경행)=서울지방청 성동경찰서장

▲이봉행(00/02 일반대학원 경찰행정학과 박사)=서울청 구로경찰서장

▲신동호(74/81 경행)=서울지방청 은평경찰서장

▲한달우(99/01 행원)=대전지방청 서부경찰서장

▲김창수(행정대학원/일반대학원 경찰행정학과 박사과정)=경기지방청 홍보담당관

▲박종수(03/05 일반대학원 경찰행정학과 박사과정)=경기지방청 성남중원경찰서장

▲김성권(80/83 경행)=강원지방청 춘천경찰서장

▲임정섭 동문(77/83 법학)=강원지방청 평창경찰서장

▲김관태(74/81 경행)=충북지방청 수사과장

▲윤명성(일반대학원 경찰행정학과 박사과정)=전남지방청 청문감사담당관

▲김상우(82/89 경행)=경북지방청 예천경찰서장

▲이상로(82/89 경행)=경찰대 교육

▲이승길(78/85 경행)=경찰대 교육

▲14면 동문동정 인사란중 이상원(77/81경행) 경기 포천경찰서장은 동문이 아니므로 바로잡습니다.

- 바로잡습니다 -

지난 219호 ▲6면 정석호(01/05법학)동문은 '포항시의회'를 '경주시의회'로

국민훈장 무궁화장 받아



본회 고문인 이민휘(56/60정치) 동문이 10월 5일 오전 서울 워커히호텔에서 외교통상부가 주최한 제4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

에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는다.

이 동문은 미주동포후원재단 이사장등을 역임하며 '세계 속의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한인상'을 심는데 앞장서왔다.

'중소기업인 명예의 전당'에



김재경(57/61경제,(주)동보 대표이사)동문이 기업은행의 '제7회 중소기업인 명예의 전당' 헌정자로 선정되어 지난 8월2일

서울 중구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헌정식을 가졌다.

중국 동포마을에 농업기술교육



윤천영(59/66농학, 전국 농업기술자협회 회장)동문이 농업기술자 시·도 연합회장 및 사무처장 28명과 함께 지난 8월23일부터

29일까지 1주일간 흑룡강성 하얼빈을 비롯한 아성구 흥성촌, 해림시 신희촌 등에 있는 동포마을을 방문, 우리의 선진 농업기술과 새마을 운동 등을 전수하고 귀국했다.

개산조 태허 조사스님 탄신 다례법회



홍가스님(63/67 불교)이 지난 10월2일 나산 묘각사 대불보전에서 개산조 태허 조사스님 탄신 105주년을 기념하는 다례법회를 열었다.

제9회 울산광역시민대상 수상



이두철(89/91 사회과학대학원, <주>삼창기업 대표)동문이 제9회 울산광역시민대상 산업·경제부문의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이 동문은 10월 1일 울산시청 2층 시민홀에서 개최되는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상을 수상하였다.

중앙 선데이 '호암자전' 연재



유영수(71/78 전자공학,전문기업 만화가) 동문이 지난 8월 14일 '중앙 선데이'에 이병철 삼성회장의 일대기를 다루는 만화 '호암자전' 연재를 시작했다.

이번 연재작 '호암자전'은 호암의 경제 경영 지식과 더불어 삶의 지혜를 보여주겠다는 야심작이다.

국제미인대회 1위



하현정(06/00연극) 동문이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2010 미스 투어리즘 퀸 인터내셔널 대회에서 1위와 함께 특별상인 '미스 매력상'을 수상해 2관왕에 올랐다.

하 동문은 지난 7월 2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미(美)에 뽑힌 바 있다.

'동문동정' 연락주십시오.

각계각층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동문 여러분들의 근황은 우리 동국의 자랑이자 긍지입니다. 본인이나 주변 동문의 소식을 알려주시면 동창회보와 홈페이지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02)733-3991, 733-3993

서울시내 중고 교장 5명 승진

중등교육계 관리자만 80여명



고병원



김용선



신동관



박재욱



김성중



양희섭

등학교관리자모임을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한편 이번 경사는 교직에 뜻을 두고 공부하고 있는 모교 재학생과 졸업생들에게도 큰 용기와 자신감을 보여주는 쾌거가 되고 있다.

- △고병원(72/76 체교)=진선여중 교장
- △김용선(73/77 사교)=동대부여교 교장
- △신동관(73/80 수교)=상일미디어교 교장(상일중학교 교장에서 영전)
- △박재욱(74/81 수교)=오남중 교장
- △김성중(77/84 생물)=중앙중 교장
- △양희섭(77/84 역교)=백석중 교장

서울의 중·고등학교에 봉직하고 있는 동문 6명이 지난 9월1일 교장으로 승진, 또는 영전되는 경사를 맞았다.

이번 대거 승진 등은 교직 동문들의 파위가 한층 강화된 것으로서 서울에만 40여명의 중·고등학교 동문 교장을 자랑하게 되었다. 이들은 중

본회 홈페이지 전면 개편

뉴스사이트 오픈... 정보소통 활성화

본회는 지난 8월 말 본회 동창회보의 홈페이지를 개편, 그 중 일부인 뉴스 사이트를 오픈하였다.

지난 2006년 7월 7일 첫 오픈된 이래 22만 전체 동문들에게 정보 교환과 소통을 위한 장으로 활용되던 본회 동창회보 홈페이지는 그동안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는 최신 정보화시대에 비취 다소 구태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에 오픈한 뉴스 사이트는 크게 모교소식, 동창회소식, 지부지회소식, 동문소식, 동문칼럼, 커뮤니티 등 모두 6개 콘텐츠로 나뉘어져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개편 작업이 완성되는 대로 선을 보이게 될 전체 홈페이지의 오픈은 10월 중에 할 예정으로 있다.

개편된 홈페이지 주소는 <http://dongguk.or.kr>이다.

서울특별시 대변인으로



이종현 동문(86/90 국문)이 지난 8월8일 서울시 대변인(2급 상당)으로 임명됐다. 이 동문은 2006년 서울시 부대변인과 서울시장 정무특보, 공보특보 등을 지낸 바 있다.

강원대 사무국장 부임



신윤길(73/80경행) 동문이 지난 9월6일자로 개방형 공모직인 강원대 사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신 동문은 강원대 연구지원과장,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강원대학교 사무국장으로 일해 왔다.

청소년활동 진흥원 사무처장에

전성민(74/81 물리, 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협력사업본부장)동문이 지난 8월 19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사무처장에 임명됐다.

금감원 부원장보 승진

김수봉(78/82전산)동문이 지난 9월3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직책인 보험업 서비스본부장으로 승진했다.

온누리씨치 대표로

황태식(89/92 경영대학원)동문이 기업체 고급인력 헤드헌팅 업체인 (주)온누리씨치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상임감사로

양승용(03/07국제통상)동문이 지난 8월11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상임감사에 취임했다.

제26회 입법고시 합격

홍 정(05/09행정)동문이 2010년도 제 26회 입법고시에 최종 합격했다. 올해 15명 선발에 무려 5천여 명이

응시, 경쟁률이 364.3:1에 달한 이번 입법고시에서 모교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 이어 4위에 올랐다.



인 사

- ▲이철호(76/80 행정)=8월22일 경향신문 미디어전략실장
- ▲노재덕(76/83 국교)=8월22일 경향신문 영상미디어 국장
- ▲고기철(82/90 경행)=금융정보분석원
- ▲김영현(90/94 경행)=서울동부지검 사건과장
- ▲김기현(98/01 일원)=서울구치소장
- ▲최강주(82/89 경행)=법무부 교정기획과장
- ▲임석기(78/82 일원)=국회정보위 입법조사관
- ▲손외철(대학원)=보호관찰소 서무과장



결 혼

- ▲이순우(60/64경제)=8월28일 장남 호준 결혼
- ▲엄만용(71/75건공)=9월4일 장남 동식 결혼
- ▲서병수(67/71행정)=9월11일 차녀 하경 결혼
- ▲김종우(66/70경행)=9월11일 장남 정욱 결혼
- ▲오출세(67/71국문)=10월2일 장남 형균 결혼
- ▲김정결(58/63법학)=10월3일 장남 호산 결혼
- ▲위종성(64/71 농경)=10월3일 장남 정호 결혼
- ▲박상호(64/68법학)=10월9일 장남 재우 결혼



부 음

- ▲오준창(63/67경행)=7월6일 본인 별세
- ▲김영추(58/64법학·전 법제처차장)=8월29일 본인 별세

신 간 안 내

첩보에서 정보까지

이갑현(69/73 경행) 지음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로 있는 이갑현 동문이 출간했다.

이 동문은 책 머리말에서 "이 시대의 키워드는 정보일 수 밖에 없다."고 하고 "국가와 역사를 외면하고 정보와 안보를 소홀히 하는 국민이나 민족은 결코 평탄한 길을 걸어갈 수 없다"고 강변한다.

국가와 정보, 정보활동의 실제, 방첩과 보안, 세계정보기관, 정보의 성공과 실패 등을 큰 명제로 놓고 필자는 외교현장과 대학강단에서 체험하고 얻은 광범위한 지식을 통해 보다 단순화한 정보와 첩보이론을 제시, 독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신 간 안 내

스포츠 공화국의 탄생

허진석(83/87 국문)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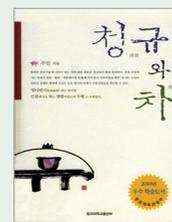
박정희의 제3공화국이 펼쳤던 스포츠-체육 정책에 관한 논평을 담은 저서다.

저자는 이 책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체육정책을 입안 시행했던 대한체육회장 민관식을 사례로 제3공화국의 스포츠-체육 정책이 절대권력의 국가 경영 이념을 반영하는 것이었다고 하고 "스포츠 역량과 경제적 역량을 동일시, 세계 10위권의 스포츠 강국으로 진입시키는 엘리트 스포츠 정책의 초석을 다졌다"고 평가하는 한편 다양한 스포츠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에 대한 성과와 의의, 그 한계에 관해 상세한 전문가적 피력을 하고 있다.

신 간 안 내

청규와 차

수인 스님(98/00 선학) 지음



차 생활이 풍성하여 연중행사에 다례가 빠지지 않았다고 하는 송대 선원의 다탕문화의 실상과 의미를 정리해낸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 '송대 선원다례에 대한 연구'를 수정·보완해 낸 저서.

행자시절, 하동 쌍계사의 큰스님이 손수 우려내 준 비취색의 차 색깔과 신선하고 그윽했던 분위기에 끌려 '차'의 세계로 들어가게 됐다라는 고백으로 책을 시작하고 있다. 중국초기에서부터 당·송대에 이르는 차 문화를 요약 망라하고, 수행승의 윤리와 다탕의례, 장례·제례와 다규에 이르기까지 차의 문화적 의미와 불교미학에 관련한 전문적 견해를 꼼꼼히 싣고 있다.

■ 재 중국 동국대학교총동문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은 동문... 2백여명 참여



최영철 총동문회장



임영호 북경 고문



이수춘 상해 고문



우학 큰스님 (청도)



황인원 북경 회장



백석기 상해 회장



김용식 천진 회장

중국 총동문회는 북경, 상해, 천진, 청도, 동북3성 동문회등 5개 지역 동문회가 모인 연합동문회이다.

중국에 있는 동문들의 총체적인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모교 유학생들을 위한 지원에도 힘쓰고 있는 중국 총동문회의 임원진들을 만나 그 위상과 면모에 관해 알아보았다.

- 반갑습니다. '재중국 동국대학교 총동문회'는 언제 결성되었으며 어떤 계기로 첫 모임을 갖게 되었는지요?

△재중국 동문회는 지역별로 그 결성 시기가 조금씩 다르다. 북경 동문회는 1998년에 발족, 천진과 상해 동문회는 2004년 발족, 그리고 청도 동문회는 이듬해 2005년 발족, 동북3성 동문회는 2006년에 발족되었다.

5개 지역 동문회가 처음 모이게 된 것은 각 지역 상사 주재원들과 현지에 진출해 사업을 하고 있던 동문 및 유학생들 약간명이 모여 서로간에 정보 교환을 하면서 동문 결속을 다지던 것이 계기가 되어 현재는 총 200여명의 회원들이 모여 활동하고 있다.

- 동문간 정기적인 모임은 어떻게 갖고 있으며 어떤 형식으로 모이는지요?

△지리적으로 가까운 북경과 천진이 2005년부터 연합모임을 진행하면서 이듬해 다른 지역 동문들과도 교류를 하기로 하고 매년 한번씩 정기총회를 한다. 단, 지역별 순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 중국 동문회의 주요 활동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매년 봄 북경에서 개최되는 재중국 대학동문회 골프대회가 있다. 14개 대학이 참가하며 현재까지 4회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우리 대학은 나날이 그 기량이 상승, 올해 준우승까지 했다. 또 지역별 동문들은 매달 또는 두 달에 한번씩 정기모임을 갖고 골프 모임과 유학생 모임 등을 운영하면서 봄 가을엔 등산대회와 가족 동반 송년 모임도 하고 있다. 중국에서 귀국한 동문들의 OB모



▲ 9월11일 청도에서 열린 정기총회 참석 동문 및 가족들이 이연택 회장과 기념촬영을 했다.

임도 매년 한국에서 연 3회 정도 열리고 있다.

- 전체 화합이 잘 되시고 활동도 눈부신 듯 한데요, 중국 총동문회만의 자랑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후배지원과 교민 멘토 역할에 큰 자부심 북경·상해·천진·청도·동북3성 순회 모임 지역별 창립시기 달라도 결속력 과시

△무엇보다 끈끈한 결속력이다. 중국은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본국으로 언제 어떻게 돌아가게 될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활동들을 하고 있다. 때문에 동문들간에



▲ 이연택 회장이 건배를 한 뒤 산악인 박영석 동문 등과 담소를 나누고 있다.

서로 의지하고 용기를 북돋워주면서 모두 '한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연대감이 투철하다. 다른 대학 출신 동문들이 모두 부러워하고 있을 정도다.

- 특별히 괄목할 만한 동문들이 있다면 자랑 좀 해 주시지요.

△재중국 한국인회에서 수석부회장을 맡고있는 임영호 동문은 중국내 정부관계업무를 담당하면서 60만 한국교민의

권익신장을 위해 많은 부분 애쓰고 있다. 청도 진출 한국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데 앞장서고 있는 최영철 총동문회장은 청도 한국교민의 멘토역할을 하고 있다.

또 한국에서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회주로 활약하고 있는 우학 큰스님은 청도에 대관음사 분원을 세우고 한국불교 표교에 앞장서고 있다.

- 중국에 유학하는 모교 후배들을 위해서도 관심을 갖고 여러모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후배들 역시 한 가족이란 생각으로 물심양면으로 돕고 있다. 필요한 정보제공은 물론, 혹시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호되게 꾸짖어 주기도 하고 좋은 일에는 같이 기뻐하고 축하하면서 선 후배간의 정을 쌓고 있다.

- 동문들의 단합을 도모하시면서 특별히 기억나는 일이 있다면요?

△2008년 북경올림픽 당시, 모교에서 학생취재단이 왔는데 모두가 북경 동문들의 집에서 홈스테이를 했고 동문 자체들과 모교 교환학생들이 통역을 맡았다. 덕분에 서로가 돈독한 정을 쌓았고 동문과 동문 가족들에게도 따뜻하고 뜻깊은 추억이 됐다.

- 혹시 중국을 방문하는 동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정보가 있을까요?

△천진으로 출장 오는 동문들 대부분이 5성급 호텔도 마다하고 천진온천호텔에 묵는다. 천진동문회 김병수 총무가 그 호텔 상무로 있기 때문에 동문들에게 숙박비 DC의 특혜를 주기 때문이다. 호텔 내 사우나를 가도... 식당을 가도... 어딜 가든지 우리 동문들을 만날 수 있어서 즐겁다.

- 동문들의 활약이 더욱 기대되네요. 끝으로, 다른 지역 동문회와도 교류가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정기총회 시, 미국과 캐나다 동문회에 메일을 보내 중국에 출장오는 동문이 있으면 참석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곤 한다. 우리 중국 총동문회는 항시 모교와 총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고자 여러모로 연구 중이다.

△중국총동문회 회장=최영철, 사무국장=이원희

△북경지회 회장=황인원, 총무=김태호
△상해지회 회장=백석기, 총무=정우석
△천진지회 회장=김용식, 총무=김병수
△청도지회 회장=최영철, 총무=고용득

■ 정연수 말표구두약 대표이사

기업 CEO에서 장 담그는 시골 농부로...



열해있는 토종 옹기들이 한 눈에 들어왔다. 장 담그기의 명인이었던 부친 정두화 옹이 물려주고 간 것들이라고 하는데 자그마치 7백 개나 되는 그 옹기들 속에 이제는 부친에게서 배운 '정연수 표' 간장, 된장, 고추장들이 가득 채워져있다고 한다.

“장이 맛있으려면 중요한 게 뭘지 아세요? 물과 공기가 좋아야해요.” 장맛과 자연의 조화론을 펼치는 데 거침이 없는 정연수 동문. 총 면적이 6만 평에 이르는 수진원은 1970년대 초, 잊혀져가는 우리 장맛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부친이 매입 개

자'는 것이 그것. “참된 음식점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난 자신있어요. 맛있는 기본양념 ‘장’이 있잖습니까!” 그의 말대로라면 우리는 머지않은 날, 그가 내는 아주 정직하고 맛있는 밥상을 받아 먹을 수 있음직하다. 실제로 그 꿈의 실현을 위해 회사에 레저식품사업부를 신설, 본격적인 우리 먹거리 창출에 강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그런데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묻자 갑자기 목소리가 단호해진다. “요새 일자리가 없다고 불평들인데 그건 아니죠. 눈높이를 낮춰야합니다. 모두 어려운 일은 피하고 명함 내놓기 좋은 대기업만 욕심을 내구 있어요. 중소기업을 찾아보세요. 일자리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돈이 비싸도 자진 솔직히 우리 젊은이들을 쓰고 싶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는데, 이런 끈고 우직한 아들의

장을 지킨다는 믿음에서다. 젊은 시절엔 똑똑한 것이 좋았고 자신도 꼭 그래야 했다. 그러나 지금은 똑똑한 것·영악한 것이 무섭고 싫다. 경영 승계를 위해 말표산업의 일반사원으로 착실하게 일을 배우고 있는 외아들 역시 지나치게 똑똑치는 말아줬으면 한다. “요즘에는요, 진실된 사람이 가장 무섭고 또 호감이 가요.” 진실의 무게와 아름다움을 누군들 가벼히 보라! 꺾꺾 웃는 그에게서 시골 농부의 냄새가 물씬 풍긴다.

그는 한때 영화제작을 꿈꿨다. 절친한 가수 최백호씨와 의기투합해 ‘부에노 비스타 소셜클럽’을 뛰어넘는 명품영화를 꿈꿨다. ‘윈들러 리스트’의 리암 닐슨과 ‘글레디에이터’의 팬이고 우리 영화 ‘달콤한 인생’이 좋았다는 정연수 동문. “이젠 다 흘러간 추억”이라며 얼굴까지 붉혀 웃는데... ‘규격화’는 영 짝이라는 정연수 동문. 옹기와 연결해 장맛 이론을 편다. 옹기 수가 많아지면 장을 담그는데 욕심을 내게 되고 장맛도 자연 변하기 마련이라고. “장은 일년에 한 번, 꼭 정월 말날에 담가야 제맛이예요. 아버지에게서 배운 건데 신기하게도 그래야 진짜 장이 맛나요.” 그는 이제 더 이상 도시 남자가 아닌 듯 하다.

“이 농장에 제 청춘을 다 바쳤어요. 다행히 아들 녀석이 애비의 뜻을 알고 자기도 같은 길을 걸겠다 하니 너무 기쁘고 감사하죠.” 작고한 부친께서도 3대에 걸친 가업 승계를 하늘에서 흐뭇해하고 계실 것 같아 정말 행복하다는 정연수 동문. 수진원의 옹기 주변에 꽃들이 빨갭게 활짝 피었다. 그 모습이 꼭 정 동문의 열정을 닮은 듯 했다.

‘구두약’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상표가 있다. 바로 말표구두약이다. 그런데 그 말표구두약의 대표이사 정연수(70/74 과교) 동문이 우리 전통 장을 담그는 농부가 되어 또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 ‘잘 나가는 기업 CEO가 장 담그는 시골 농부로’? 솔직히 잘 상상이 되지 않는다. 과연 무엇이 손꼽히는 유망 중소기업의 CEO인생에 일대 전환점을 만든 것일까? 찌는 듯 강렬한 태양이 내리쬐던 지난 달 하순,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에 위치한 그의 농장 수진원에서 그를 만났다.

“어떻게 날 취재할 생각을 하셨습니까?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있는 것도 아닌데.” 활짝 웃는 그의 등 뒤로 길게 도

제대로 된 참 먹거리로 맛있는 밥상 꿈꿔

“굵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땅에 투자

간한 땅. 정 동문은 그 중 2만 5천 평 땅에 콩을 심었다. 수진원을 흐르는 맑고 깨끗한 물과 좋은 공기, 그리고 손수 수확한 콩으로 맛있는 장을 담겠다는 생각에서다.

구두약에서 시작해 자동차용품과 생활용품, 흥체 보안인식시스템 같은 첨단 산업에까지 꾸준히 영역확장을 하고 있는 정연수 동문. 그런 그가 요즘 간절히 꿈꾸는 것은 단 하나라고. 우리 장을 가지고 ‘제대로 된 참 먹거리를 만들어보

가능성을 꿰뚫어 본 것일까? 말표산업의 창업주 그의 부친은 대학 졸업 후 친구와 들어서 작은 사업을 차려 홀로서기를 꿈꿨던 차남 정 동문을 후계자로 낙점, 1988년 경영권을 승계해줬다.

“아버지는 매우 엄격한 분이셨어요. 기업은 해도 투기는 하지마라 하셨죠. 그래서 전 오로지 농사를 위한 땅에만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굵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는 말을 새기고 있다고 한다. 우직한 촌 농부가 선산과 고

사범대, 전국사범대 평가서 A등급

지난 8월27일 발표된 전국 사범대학 평가에서 모교 사범대학이 고려대, 이화여대 등과 함께 A등급을 받았다.

모교는 이번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음에 따라 학과간 입학정원 조정 자율권이 부여되고 교사양성 특별과정, 교장양성과정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평가는 교육과학기술부가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 의뢰해 전국 45개 사범대학, 49개 일반대학 교직과정, 40개 교육대학원을 대상으로 전임교원 확보율, 교원인용률, 연구실적 등을 평가 분석한 결과

이다. 이번 학부과정 평가에서 A등급은 모교 동국대와 고려대, 이화여대, 중앙대, 충남대, 공주대, 대구대, 성신여대 등 8개 대학이 받았다.

일반대학 교직과정은 A,B등급이 없이 모교를 비롯해 18개 대학이 C등급을 받았는데 1년 이내 자구노력 재평가를 거쳐 등급이 개선되지 않으면 승인인원의 20%가 축소된다.

한편 교육대학원도 C등급을 받아 1년 뒤 재평가를 거쳐 양성기능 축소여부가 결정된다.

대학평가 경향신문 10위 · 중앙일보 17위

모교가 지난 9월13일과 27일 발표된 경향신문과 중앙일보 대학평가 결과에서 각각 종합 10위와 17위를 차지했다.

9월13일의 경향신문 발표는 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경제연구소(ERISS)에서 내놓은 첫 번째 대학 평가결과로 각종 계량화된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교수, 학부, 학생 3,000명의 인터뷰 및 재학생 15,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거

쳐 산출된 결과이다.

이어 9월27일 발표된 중앙일보의 평가에서는 서울캠퍼스와 경주캠퍼스가 분리되어 서울캠퍼스가 17위, 경주캠퍼스가 49위에 랭크되었다. 지난 해 서울·경주 통합 순위평가는 28위였다.

대학 재학생 수에 따라 세분화해 평가한 대학순위에서는 서울캠퍼스의 인문·사회 분야가 6위에 올랐다.

서울 레바논국립대학과 학술교류 몽골대학들과 협력 MOU체결 경주

모교가 레바논국립대학과 지난 9월7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다. 이날 협정식은 오영교 총장, 레바논 국립대학 총장과 모교 김일중 국제화추진단장, 정용상 법과대학장, 정창근 사회과학대학장 등이 참석했다.

레바논 국립대학은 1951년에 설립된 레바논 내 유일한 국립종합대학으로 총 17개 학부를 가지고 있으며, 법학과 정치학

분야가 특히 강세인 학교다.

한편 경주캠퍼스는 7월 26일부터 30일까지 손동진 경주캠퍼스 총장과 노명희 국제교류교육원장 등이 몽골을 방문, 몽골 재정경제대학 및 몽골과학기술대학교와 상호 교류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는 양 대학 교수 파견과 연구수, 학생교환 프로그램, 공동학술 및 연구 프로젝트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모교 후문이 달라졌다



모교 후문이 기존에 있던 기둥과 교문, 경비실이 완전 철거되고 외관이 산뜻하게 바뀌었다.

제일병원과 맞닿아 있는 후문은 층무리로 통하는 주요 출입구로 70년대

초까지는 정문역할을 해왔으나 그동안 이렇다할 상징성을 갖지 못했다. 모교는 이번 하계방학 중에 화단을 조성하고, 그 위에 학교를 상징하는 UI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새 단장을 마쳤다.

국내 첫 경찰사범대학원 설립

정원30명-형사정책 전문인력 양성

모교 행정대학원(원장=정창근)이 범죄학, 범죄심리, 교정학 등을 연구하고 형사정책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경찰사범대학원'을 설립한다.

국내 일부 대학원에 이론 중심 또는 재교육 목적으로 범죄학 등을 다루는 단일 전공 석·박사 과정이 개설돼 있기는 하지만, 범죄와 형사정책을 직접 다루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특성화한 통합 대학원을 설립하는 것은 모교가 처음이다.

1962년 국내 최초로 경찰행정학과를, 1983년에 행정대학원公安행정학과를 개설한 바 있는 모교는 지난해 5월부터 경찰대학원 설립안을 추진해왔으며, 지난 8월 최종 확정을 거쳐 2011년 3월 개원을 앞두고 있다.

경찰대학원은 경찰학, 범죄학·범죄심리, 국가정보학·산업보안, 교정학·보호관찰 등 4개 전공에 30명을 모집한다.

공인회계사 36명 최종 합격

금년도 공인회계사시험(CPA) 최종합격자가 역대 최다인 총 3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의 20명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이번 시험에서 모교는 전국 8위를 기록했다.

식품공학과 연구센터 개소식

식품공학과와 지능형 농식품포장연구센터(센터장=이승주 교수) 개소식이 지난 9월 16일 모교 충무로관에서 있었다.

2010년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연구센터사업의 일환으로 발족한 이번 연구센터는 포장식품의 품질을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지시계와 IT 융합형 지시계 및 운영시스템, 나노기술기반 신선도 제어 포장시스템의 개발 등을 계획하여 기술개발과 제품화를 꾀하는 한편, 전문인력양성을 주도할 목적으로 있다.

'동국인 앱' 개발 서비스

동국미디어센터가 대학언론 사상 최초로 모바일 미디어포털 <동국인>의 앱(Application)을 개발해 서비스에 들어갔다. 이번에 서비스가 시작된 대학미디어포털 <동국인>의 아이폰용 앱은 각종 학교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하는 한편 영상뉴스까지 서비스하고 있는 실질적인 미디어 기능을 가진 모바일 뉴스 서비스다.

<동국인 앱>은 또 동대신문과 교육방송국에서 제공되는 뉴스와 영상을 서비스하고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계속 업데이트해나갈 방침이다.

교수 동정

조계종 장학위원장에 선임



선학과 교수 보광스님이 지난 7월26일 조계종 장학위원장으로 선임되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다른 11명의 장학위원들과 함께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수여하는 위촉장을 받았다.

유네스코 국제전문가 위촉받아



사학과 임돈희 석좌교수가 아시아 지역에서 유일하게 유네스코 아이티 문화유산 보호 국제전문가로 위촉됐다.

유네스코는 지난 1월 발생한 대지진으로 아이티 문화유산을 긴급 보호할 것을 결의하고 최근 국제전문가 10명을 대책위원으로 위촉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 국제심사위원, 한국민속학회 회장 등을 지낸 임 교수는 그동안 국제화시대의 로컬 민속과 민속학,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문제 등을 연구해왔다.

동아시아환경자원 경제학회 부회장에



국제통상학과 김일중 교수가 최근 일본 삿포로에서 열린 동아시아환경자원경제학회 제1차 총회에서 초대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이 학회는 한국과 중국, 일본,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아시아

국가의 환경, 자원경제학 교수 125명이 참여해 올해 처음으로 설립됐다. 초대 회장으로는 일본 교토대학 가츠히로 우에타(Kazuhiro Ueta)교수가 선출됐다.

국제학술지 '최다 인용 논문상' 수상



경주캠퍼스 경영·관광대학 이영찬 교수가 국제저명학회에 발표한 논문이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으로 선정돼 2006~2008 최다 인용 논문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 'Expert Systems with Applications'에 게재된 논문 중 피인용 회수가 상위 50위 안에 들어가는 논문 저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사랑과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회비납부기간 : 2010년 8월 1일 ~ 2010년 10월 4일)

각종 회비와 기금은 동국발전을 위해 소중히 쓰이고 있습니다.

• 금액 · 성명 가나다순 · 회비 · 기금 납부시 성명 · 졸업년도 · 학과를 필히 명시해 주십시오. (단위:만원)

각종회비 납부안내

- 외환은행 150-22-01536-0
- 예 금 주 : 동국대학교총동창회

동국장학회기금



전영화 (65/69경행) 부회장 5백만원



수인스님 (98/00선학) 부회장 1백만원

- ▲김경재(65/69농학) 3천만원
- ▲송석환(64/68농경) 2천만원
- ▲정연수(70/74과교) 1천만원
- ▲광주동문회 1천만원
- ▲오세청(60/67상학) 10만원

부 회 장



강영규 (70/77경행) 부회장 100만원



고용규 (70/74정외) 부회장 100만원



구재태 (63/67경행) 부회장 100만원



권경섭 (60/64국문) 부회장 100만원



권형주 (70/77무역) 부회장 100만원



김경재 (65/69농학) 부회장 100만원



김기중 (59/63상학) 부회장 100만원



김동진 (64/68행정) 부회장 100만원



김동환 (03/06행원) 부회장 100만원



김무봉 (74/82국문) 부회장 100만원



김상일 (75/79전공) 부회장 100만원



김세준 (71/75화학) 부회장 100만원



김윤목 (91/93행원) 부회장 100만원



김인양 (77/81농경) 부회장 100만원



김진문 (64/71경영) 부회장 100만원



김진익 (73/80경영) 부회장 100만원



김환배 (68/72연료) 부회장 100만원



나동연 (80/84무역) 부회장 100만원



노주혁 (75/82농생) 부회장 100만원



노준식 (58/62정치) 부회장 100만원



문병호 (68/72정치) 부회장 100만원



민병덕 (74/81경영) 부회장 100만원



박 순 (64/68불교) 부회장 100만원



박충환 (55/59경제) 부회장 100만원



박희창 (66/70경영) 부회장 100만원



법조스님 (70/73불교) 부회장 100만원



서승삼 (71/78경제) 부회장 100만원



신정철 (60/67경영) 부회장 100만원



안채란 (48/54국문) 부회장 100만원



여익구 (67/94사학) 부회장 100만원



오창환 (63/67경영) 부회장 100만원



월탄스님 (64/68불교) 부회장 100만원



유정환 (03/07경영) 부회장 100만원



이창규 (62/65경영) 부회장 100만원



일면스님 (75/승가) 부회장 100만원



전부중 (80/87사교) 부회장 100만원



정산스님 (88/92선학) 부회장 100만원



정연수 (70/74과교) 부회장 100만원



정환민 (65/69농학) 부회장 100만원



홍선기 (69/73정치) 부회장 100만원

지도위원 회비

- ▲김시배 (54/58경제) 30
- ▲김영근 (46/49문학) 30
- ▲김용모 (57/59경제) 30
- ▲김일환 (64/70경제) 30
- ▲김정걸 (58/63법학) 30
- ▲김종규 (58/64경제) 30
- ▲명성스님 (64/68불교) 30
- ▲박낙원 (57/61정치) 30
- ▲신윤표 (61/65행정) 30
- ▲신정균 (89/90정원) 30
- ▲이기화 (57/59경제) 30
- ▲조재호 (61/65불교) 30
- ▲종상스님 (86/88행원) 30
- ▲최명재 (57/61영문) 30
- ▲허천택 (56/61영문) 30
- ▲홍성숙 (61/65불교) 30

- ▲김광철 (76/83경행) 20
- ▲김교근 (61/65경영) 20
- ▲김낙돌 (64/71경제) 20
- ▲김덕경 (76/80경행) 20
- ▲김무성 (58/62경제) 20
- ▲김문기 (67/71입학) 20
- ▲김선일 (66/78미술) 20
- ▲김용정 (56/59철학) 20
- ▲김재응 (65/69경영) 20
- ▲김태원 (72/77체교) 20
- ▲김태현 (84/89불교) 20
- ▲김학진 (66/70농경) 20
- ▲노창현 (66/73농학) 20
- ▲맹용재 (86/88행원) 20
- ▲박복식 (57/60법학) 20
- ▲박중훈 (69/76정치) 20
- ▲배중대 (57/62철학) 20
- ▲변태원 (61/63법학) 20
- ▲서진규 (64/71법학) 20

- ▲이범규 (66/73농학) 20
- ▲이상민 (68/69행원) 20
- ▲이성수 (68/72경행) 20
- ▲이원호 (89/99사회) 20
- ▲이원희 (86/90경영) 20
- ▲이종원 (08/08불원) 20
- ▲이채욱 (60/64정치) 20
- ▲장두수 (72/77국문) 20
- ▲정대진 (59/63법학) 20
- ▲정성채 (61/67법학) 20
- ▲정준호 (95/97행원) 20
- ▲정중호 (73/77무역) 20
- ▲조영규 (69/76사교) 20
- ▲주선웅 (59/63불교) 20
- ▲최수길 (60/67국문) 20
- ▲최인숙 (71/75철학) 20
- ▲최창선 (64/71경영) 20
- ▲토진스님 (87/91선학) 20
- ▲하광식 (71/75법학) 20

- ▲김경태 (72/79화공) 10
- ▲김규태 (48/52영문) 10
- ▲김병수 (83/87회계) 2
- ▲김석기 (85/89행원) 10
- ▲김수광 (61/65철학) 10
- ▲김숙희 (67/71물리) 10
- ▲김완규 (89/93불교) 10
- ▲김용선 (73/77사교) 10
- ▲김정만 (63/67정치) 10
- ▲김종필 (86/90경영) 10
- ▲김진길 (72/78행정) 10
- ▲김현권 (64/71경제) 10
- ▲김현인 (73/78정치) 10
- ▲김화실 (74/78수학) 10
- ▲나채문 (99/02산원) 10
- ▲남재우 (65/69경영) 10
- ▲민 해 (74/78국교) 10
- ▲박명준 (71/78건공) 10
- ▲박봉준 (77/85경제) 10
- ▲박흥서 (68/72통계) 12
- ▲방두훈 (74/81경제) 10
- ▲배용만 (72/76체교) 10
- ▲송재용 (82/88경제) 10
- ▲안수일 (80/87미술) 10
- ▲양계현 (65/69상학) 10
- ▲양승조 (59/62경제) 10
- ▲양영훈 (63/67경영) 10
- ▲어윤소 (65/72경제) 10
- ▲오선호 (84/88영문) 10

- ▲오수환 (84/91경제) 10
- ▲오원배 (72/79미술) 10
- ▲오은규 (69/73사교) 10
- ▲오출세 (67/71국문) 10
- ▲유병돈 (73/80공경) 10
- ▲윤천수 (71/75정치) 10
- ▲이경철 (71/78법학) 10
- ▲이상규 (81/88인철) 10
- ▲이성재 (76/83정치) 10
- ▲이영욱 (84/90무역) 10
- ▲이인진 (57/63법학) 10
- ▲이재영 (74/81경행) 10
- ▲이종근 (90/92사원) 10
- ▲이천기 (64/68농경) 10
- ▲이청수 (87/91산공) 10
- ▲이춘자 (95/97경원) 10
- ▲이한우 (83/84교원) 10
- ▲장복숙 (93/95불원) 10
- ▲장재응 (78/81경제) 10
- ▲전신섭 (89/91경원) 10
- ▲전찬우 (84/91화학) 10
- ▲정해중 (05/07경영) 10
- ▲조병수 (71/75경제) 10
- ▲조항태 (60/63법학) 10
- ▲차영구 (56/59경제) 10
- ▲차형천 (72/82정치) 10
- ▲최 경 (64/68입학) 10
- ▲최석권 (84/88법학) 10
- ▲하해준 (00/03사원) 10

- ▲한상림 (01/04신방) 10
- ▲한종욱 (65/67경제) 10
- ▲현학진 (86/90경제) 10
- ▲홍인표 (61/65입학) 10
- ▲홍창화 (78/82정치) 10

일반회원

- ▲강경호 (03/06불교) 2
- ▲강석우 (77/81연영) 2
- ▲강익수 (77/85건공) 2
- ▲강춘일 (53/57법학) 2
- ▲고광규 (56/61물리) 2
- ▲고운석 (72/08인철) 2
- ▲고창환 (64/68경영) 2
- ▲공성길 (76/83전산) 2
- ▲곽노경 (73/80경제) 2
- ▲광덕사 2
- ▲구윤희 (92/95불교) 2
- ▲권성호 (84/90농학) 2
- ▲권영욱 (79/82전산) 2
- ▲권태석 (/78영문) 2
- ▲김강호 (58/62경제) 2
- ▲김경미 (99/03선학) 2
- ▲김광덕 (71/79영문) 2
- ▲김광재 (66/70경제) 2
- ▲김기덕 (83/89행정) 2
- ▲김기직 (57/62영문) 2
- ▲김길정 (52/56경제) 2

- ▲김동완 (64/72연영) 2
- ▲김동인 (63/67화학) 2
- ▲김동준 (80/84경영) 2
- ▲김동형 (06/08법학) 2
- ▲김만년 (58/62정치) 2
- ▲김명석 (85/92정치) 2
- ▲김명자 (/88교원) 2
- ▲김민경 (03/06경제) 2
- ▲김방근 (68/75경영) 2
- ▲김병택 (71/77국문) 2
- ▲김봉식 (62/65불교) 2
- ▲김상구 (74/78경영) 2
- ▲김상규 (/86경원) 2
- ▲김상배 (68/72공업관리) 2
- ▲김선경 (68/75입학) 2
- ▲김성구 2
- ▲김성규 (56/60경제) 2
- ▲김성민 2
- ▲김성열 (92/99경영) 2
- ▲김성엽 (03/05법학) 2
- ▲김성원 (98/00경영) 2
- ▲김성철 (86/93전산) 2
- ▲김성태 (60/64입학) 2
- ▲김소연 (99/00연영) 2
- ▲김수완 (69/76식공) 2
- ▲김승백 (66/73무역) 2
- ▲김영봉 (53/57농학) 2

부회장 회비

- ▲이희경 (68/75경행) 12
- ▲안규호 (97/98사원) 20
- ▲안명근 (65/69농학) 20
- ▲안병창 (59/63상학) 20
- ▲오경택 (74/78토목) 20
- ▲유정우 (58/63법학) 20
- ▲이계문 (80/84공경) 20
- ▲이능희 (60/65상학) 20
- ▲이명선 (67/74농학) 20

상임이사 회비

- ▲김진방 (64/67경제) 20
- ▲김한주 (67/77일원) 20
- ▲고천석 (76/83정치) 20
- ▲권태업 (81/85사학) 20

이사 회비

- ▲구학모 (90/92행원) 10
- ▲권오윤 (81/85정치) 10

<14면에서 이어짐>	▲민병현 2	▲송기훈 (65/71경제) 2	▲유동현 (03/06행정) 2	▲이영규 (71/75수학) 2	▲전상운 (89/96회계) 2	▲채훈형 (61/68상학) 2
▲김영수 (82/89행정) 2	▲민수영 (59/65정치) 2	▲송승훈 (01/08전공) 2	▲유영만 (00/05법학) 2	▲이영길 2	▲전수식 (56/63법학) 2	▲최광서 (76/83무역) 2
▲김영전 (84/91경제) 2	▲민웅식 (54/57국문) 2	▲송영배 (64/71상학) 2	▲유준석 (81/83전산) 2	▲이영우 (59/67정의) 2	▲전은영 (70/74화학) 2	▲최광수 (56/58법학) 2
▲김용근 (76/80공경) 2	▲민현석 (/65국문) 2	▲송운석 (84/91경제) 2	▲유준열 (78/85경영) 2	▲이영진 2	▲전익흥 (/89법학) 2	▲최기호 (72/76행정) 2
▲김용민 (78/81토공) 2	▲박고홍 (64/68불교) 2	▲송 철 (/72도공) 2	▲유지훈 (77/83행정) 2	▲이용구 (71/75농학) 2	▲전정렬 (/85영문) 2	▲최동묵 (99/06사회) 2
▲김용주 (78/85건공) 2	▲박광래 (58/61경제) 2	▲신동기 (03/05행정) 2	▲유혜자 (62/64국문) 2	▲이용운 (80/87행정) 2	▲전종윤 (59/63경제) 2	▲최동형 (97/불원) 2
▲김유종 (84/91전공) 2	▲박광태 (61/63국문) 2	▲신부영 (67/71경제) 2	▲유호열 (53/58농학) 2	▲이원영 (67/70식공) 2	▲정구인 (62/64국문) 2	▲최병옥 (71/78통계) 2
▲김윤기 (64/71입학) 2	▲박근홍 (87/91경영) 2	▲신상철 (58/65정의) 2	▲유환식 (54/57경제) 2	▲이원희 (64/72영문) 2	▲정규상 (59/63경제) 2	▲최병운 (82/89경영) 2
▲김익세 (87/94산공) 2	▲박기석 (84/88경영) 2	▲신석희 (60/64사학) 2	▲윤 영 (77/81건공) 2	▲이은준 (59/61법학) 2	▲정기석 (56/59사학) 2	▲최수영 (/75행정) 2
▲김인식 (64/71경제) 2	▲박기원 (/05조경) 2	▲신용현 (80/86한의) 2	▲윤원균 (87/94회계) 2	▲이인명 (96/98경원) 2	▲정기태 (/65상학) 2	▲최영근 (00/경원) 2
▲김인태 (57/61영문) 2	▲박대길 (61/65농학) 2	▲신우철 (62/66정의) 2	▲윤인철 (87/92무역) 2	▲이인형 (76/82입학) 2	▲정도열 (98/06전공) 2	▲최재오 (57/61법학) 2
▲김작 (01/04경원) 2	▲박덕성 (66/73식공) 2	▲신종섭 (70/74철학) 2	▲윤재성 (61/65식공) 2	▲이장환 (69/73무역) 2	▲정동환 (67/71식공) 2	▲최종근 (00/01선학) 2
▲김재문 (60/62법학) 2	▲박덕준 (88/92경영) 2	▲신철호 (83/90화공) 2	▲윤종기 (79/83경영) 2	▲이재창 (51/55경제) 2	▲정수용 (64/71경제) 2	▲최종태 (57/61법학) 2
▲김재웅 (65/69영문) 2	▲박동건 (83/90경영) 2	▲심동기 (74/81토목) 2	▲윤지연 (94/98검공) 2	▲이재형 (79/84입학) 2	▲정수창 (77/80공경) 2	▲최지섭 (69/76경제) 2
▲김정갑 (97/00행정) 2	▲박동준 (88/95국민윤리) 2	▲심성희 (93/95국문) 2	▲윤창인 (90/98농경) 2	▲이정형 (/94행정) 2	▲정영식 (60/63법학) 2	▲최창호 (74/81전산) 2
▲김정남 (72/79행정) 2	▲박동훈 (03/경원) 2	▲심원근 (64/71식공) 2	▲윤태규 2	▲이제호 (69/73정의) 2	▲정영진 (84/88전산) 2	▲표대규 (86/93정의) 2
▲김정숙 (93/97영문) 2	▲박동훈 (84/88회계) 2	▲심재식 (04/경원) 2	▲윤학섭 (84/91경영) 2	▲이종연 (85/92사학) 2	▲정용탁 (82/86건공) 2	▲하두환 (53/57입학) 2
▲김정제 (56/59법학) 2	▲박상일 (64/66일원) 2	▲안군선 (85/89회계) 2	▲윤호영 (49/53정치) 2	▲이종열 (81/83회계) 2	▲정운영 (/94경원) 2	▲학명스님 (/불원) 2
▲김종서 (03/06건공) 2	▲박세훈 (70/77화공) 2	▲안명길 (78/80토목) 2	▲윤홍열 (47/51영문) 2	▲이진혁 (75/79화학) 2	▲정춘덕 (55/59법학) 2	▲한도수 (58/61경제) 2
▲김종신 (78/82공경) 2	▲박수원 (72/76국교) 2	▲안영근 (57/61불교) 2	▲윤 환 (66/70사학) 2	▲이창우 (80/87경제) 2	▲정학주 (64/72법학) 2	▲한상민 (06/경원) 2
▲김종환 (61/65불교) 2	▲박순걸 (59/63경영) 2	▲안재권 (78/84토목) 2	▲이건웅 (60/65경제) 2	▲이창진 (02/06불교) 2	▲정호영 (78/85건공) 2	▲한을희 (70/77경영) 2
▲김종훈 (57/63법학) 2	▲박윤식 (79/86사회개발) 2	▲안정배 (71/75경제) 2	▲이경자 (/불원) 2	▲이태영 (93/불교) 2	▲정흥진 (95/불원) 2	▲한인기 (/96행정) 2
▲김지권 (82/86영문) 2	▲박응섭 (/52국문) 2	▲안중익 (77/81경행) 2	▲이경찬 (61/65법학) 2	▲이학문 (55/61경제) 2	▲조남기 (83/87경영) 2	▲한진수 (86/94미술) 2
▲김지연 (/불원) 2	▲박재원 (57/68경제) 2	▲안한상 (67/69국문) 2	▲이귀옥 (99/03연영) 2	▲이현수 (54/61입학) 2	▲조병권 (/87경원) 2	▲한현규 2
▲김진곤 (84/91전산) 2	▲박재희 (86/92의학) 2	▲안형영 (78/82전공) 2	▲이근익 (61/65식공) 2	▲이현숙 (06/08행정) 2	▲조석승 (59/65법학) 2	▲허관식 (78/85행정) 2
▲김진근 (78/81토공) 2	▲박정우 (92/94건공) 2	▲양원모 (94/01행정) 2	▲이기정 (63/70식공) 2	▲이흥섭 (59/63경제) 2	▲조선주 (/83행정) 2	▲허덕조 (54/57정치) 2
▲김진방 (64/67경제) 2	▲박지원 (56/58경제) 2	▲양정기 (65/73통계) 2	▲이기호 (78/85경영) 2	▲이효승 (00/06한의) 2	▲조성각 (59/65영문) 2	▲허 범 (58/62경제) 2
▲김창수 (59/62경제) 2	▲박차숙 (98/불교) 2	▲어관우 (69/74경제) 2	▲이덕일 (92/94불교) 2	▲이희관 (84/88산공) 2	▲조성실 (58/60경제) 2	▲현석균 (94/95불원) 2
▲김창수 (59/64정의) 2	▲박창영 (72/80농생) 2	▲엄주훈 (62/63경제) 2	▲이문수 (61/65생물) 2	▲인준범 (58/63입학) 2	▲조승희 (63/67경영) 2	▲호준환 (56/60정치) 2
▲김현규 (06/경원) 2	▲박태술 (58/64경제) 2	▲엄호천 (95/97산원) 2	▲이범주 (78/85식공) 2	▲인형식 (61/65영문) 2	▲조원희 (85/93경영) 2	▲흥기표 (58/64정의) 2
▲김희자 (89/93미술) 2	▲박화재 (05/ 경원) 2	▲여균식 (73/78농학) 2	▲이범진 (65/69정의) 2	▲임명민 2	▲조정근 (83/90사학) 2	▲흥영일 (59/66농학) 2
▲나덕찬 (84/88회계) 2	▲박후남 (05/07불문원) 2	▲염동훈 (58/64법학) 2	▲이범길 (/71화학) 2	▲임인규 (78/81승가) 2	▲조지환 (55/58경제) 2	▲흥영준 (61/65경제) 2
▲남시혁 (56/58정치) 2	▲박희찬 (06/08철학) 2	▲오금자 (76/80승가) 2	▲이병노 (86/91경행) 2	▲임지수 (82/86경제) 2	▲조철규 (/83승가) 2	▲흥의재 (03/05한의) 2
▲노재환 (71/75식공) 2	▲배장섭 (78/86철학) 2	▲오범석 (89/96무역) 2	▲이병석 2	▲임채호 (82/88전산) 2	▲조한식 (71/75공경) 2	▲흥정숙 (00/) 2
▲덕운스님 (/96불원) 2	▲배중우 (64/67경제) 2	▲오세청 (60/67상학) 2	▲이석준 (01/08경제) 2	▲임태규 (56/59경제) 2	▲조한운 (61/65상학) 2	▲흥효기 (69/73농경) 2
▲류명선 (81/85경제) 2	▲배주환 (/79전공) 2	▲오재술 (97/98불교) 2	▲이석현 (86/93미술) 2	▲자성스님 (92/93사원) 2	▲조현수 (60/64농경) 2	▲황규철 (80/87회계) 2
▲류혜숙 (72/76지교) 2	▲백기완 (64/68정치) 2	▲오창수 (97/99불원) 2	▲이성구 (/91경원) 2	▲장규환 (/63경제) 2	▲조현철 (77/84화공) 2	▲황성연 (66/73무역) 2
▲마별성 (83/90산공) 2	▲보문사 2	▲오철구 (50/53정치) 2	▲이수명 (59/63경영) 2	▲장동천 (74/78입학) 2	▲조희문 (65/67상학) 2	▲황인수 (66/69농학) 2
▲문대성 (56/59정치) 2	▲서대용 (88/92선학) 2	▲우건제 (79/84화공) 2	▲이슬기 (00/05중문) 2	▲장명근 (58/64법학) 2	▲조희경 (63/65수학) 2	▲황조연 (70/74경영) 2
▲문태성 (77/81수학) 2	▲서윤하 (82/90법학) 2	▲우근식 (98/01경원) 2	▲이승진 (91/95정의) 2	▲장진영 (80/88무역) 2	▲지원복 (72/80무역) 2	▲황향근 (/62경제) 2
▲문효성 (05/08기공) 2	▲소두영 (81/87경영) 2	▲우종환 (84/88회계) 2	▲이영 (79/84토목) 2	▲장현석 (87/91회계) 2	▲채기명 (73/77행정) 2	▲무기명 62명 124
▲민병천 (82/86산공) 2	▲소유진 (00/04연영) 2	▲유관주 (76/81농학) 2		▲장현택 (85/92경영) 2	▲채수일 (/61정치) 2	
	▲손세명 (68/72법학) 2	▲유광희 (64/68응생) 2		▲전광오 (04/06기공) 2	▲채창식 (00/04토목) 2	